

미,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체 세액공제 2027년 없앤다

세계법안서 종료시한 6년 앞당겨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없애 첨단 제조생산 공제도 조기 폐지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태도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의하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사업을 다수 폐지할 것으로 예견됐다.

하원 공화당의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이라 비판해왔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해온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법안은 2031년 말까지만 유지하도록 했다.

또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로부터 라이선스 계약 등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생산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중국 기업이 수혜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전기차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여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중 한국 기업에 가장 중요한 두 개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그간 미국 의회와 소통

하면서 이 두 세액공제 유지를 설득해왔다. 이번 법안은 세입위에서 발의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덕분에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 소속 정치

인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지난 3월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대에 비만 되면 사망확률 2배”

스웨덴 연구팀 “심장병 등 연관”

10대 말이나 20대에 비만이 되면 일찍 죽을 확률이 거의 2배로 뛰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유럽비만학회 총회에서 스웨덴인 남성 25만 8,269명과 여성 36만 1,784명의 체중 변화를 추적하고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기간에 남성 중 8만 6,673명, 여성 중 2만 9,076명이 사망했다.

연구 대상자 중 남성과 여성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각각 23년, 12년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고 경향이 있었으나, 청년기에 체중이 늘면 중년기에 늘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

17세에서 29세 사이가 '핵심적 생애 단계'인

며, 이 기간에 암, 제2형 당뇨병, 심장병 등 향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날씬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비만이 됐던 남성과 여성은 연구 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이 젊을 때 건강 체중을 유지했던 이들보다 각각 79%, 84%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인 초기에 체중이 1파운드(0.4536kg) 증가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0% 넘게 증가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역학 부교수이며 이 연구를 이끈 타냐 스톡스는 젊은 시절에 체중이 증가하면 과도한 지방에 “장기간 누적적으로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대에 조금만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체중 증가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 조기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이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건강한 습관을 길러주면 지속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만, 인·파 충돌서 활약 중 무기에 충격

전문가들 “네트워크 운용 우수”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중국산 무기가 예상보다 강한 성능을 보이면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공급된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망 등으로 무장한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교전에서 나타난 실전 성과가 대만 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진당 천관팅 의원은 지난 10일 “인도와 파키스탄 간 공중전은 중국의 PL-15 공대공 미사일과 프랑스의 미티어 미사일이 처음 맞붙은 사례일 것”이라며 “이 무기 체계들이 어떻게 성능을 발휘했는지가 앞으로 전 세계의 방위 조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의 역할을 어디에 신속히 투입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켰다”면서 “대만 안보에 중요한 시점이 된 이번 교전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 앞으로의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앞서 파키스탄의 중국산 쟈-10C 전투기를 활용해 인도군이 운용하는 프랑스산 최신에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중국산 무기의 성능에 대만 내부가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이다.

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군사 운용 능력에도 주목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쉬샤오황 수석 연구원은 “이번 전투는 중국이 통합 전술을 선보인 일종의 대리전이었다”며 “중국의 지원 아래 파키스탄은 공중 조기경보기와 디지털 지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전방위 전투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J-10C의 자체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PL-15를 발사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전투기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선제 타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미사일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뒤에 있는 네트워크가 작전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방안전연구원의 수쥘원 연구원도 “시스템 통합 없이는 대만의 장거리 공격 대응력은 극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중 관세완화에 미 7개 대형기술주 시총 1,190조원 ↑

애플 6.3% 상승 시총 3조달러 탈환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1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주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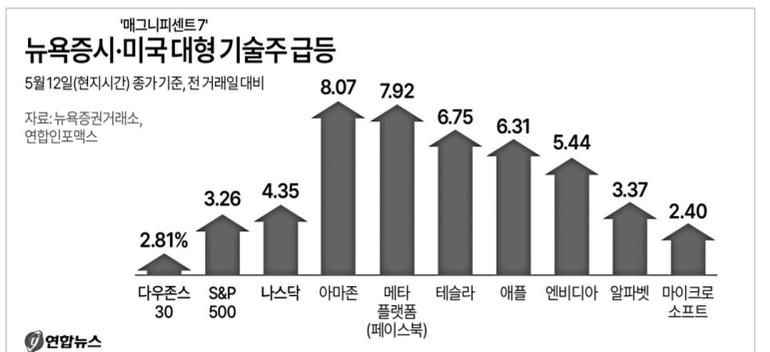
이날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31% 상승한 210.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213.32달러) 이후 증가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3조1천480억 달러로 불어나며 3조 달러 선을 회복했고,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MS·3조3,390억 달러)를 추격했다.

이날 주가는 210달러대에서 출발한 뒤 장중 206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 상승폭을 확대하며 종료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주가는 8.07% 치솟은 208.64달러에 마감했고,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도 5.44% 올라 1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 주가가 120달러선에 마감한 것은 지난 3월 25일(120.69달러) 이후 처음으로, 이날 주가는 지난 2월 28일(124.91달러) 이후 가장 높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고, 아마존은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판매자들이 많아 그동안 미중 관세 전쟁에 타격을 받아왔다. 엔비디아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칩에 대한 규제를 받아왔다.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는 6.75% 318.38달러에 거래를 마치고 지난 2월 25일(302.80달러) 이후 2개월 반만에 300달러 선을 회복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 주가도 7.92% 급등한 639.4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도 3.37%와 2.40% 오른 159.58달러와 449.26달러에 마감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이들 7개 대형 기술주의 이날 시총은 총 8,375억 달러(약 1,190조원)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는 삼성전자 시총 2,675억 달러의 3배를 넘는 규모다.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발표로 이들 기업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 물로 폭등하며 전체 1조8,600억 달러(2,642조원)의 시총이 늘어났다. 연합뉴스

일, 수심 8000m 잠항 무인 심해탐사기 공개...“중국 대항”

자율항행...시험후 내년 본격 운용

일본이 수심 8천m 바닷속을 조사할 수 있는 무인 심해탐사기 개발을 끝내고 내년부터 운용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이하 해양연구개발기구)는 최근 개발한 무인 심해탐사기 ‘우라시마 8000’을 전날 언론에 공개했다.

무인잠수정 ‘우라시마’를 개조한 이 심해탐사기는 기존 우라시마에 비해 잠수 가능 깊이가 2배 이상 늘었다. 우라시마는 수심 3,500m 정도까지만 탐사할 수 있으나 우라시마 8000은 수심 8천m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수심 8천m까지 탐사하는 성능은 광범위한 지역을 항행할 수 있는 ‘순항형’ 무인 심해 탐사기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평가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관계자가 지난 12일 가나가와현 요코카시에서 무인 심해탐사선 ‘우라시마 800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효율도 개선돼 약 40시간 동안 수중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존 우라시마 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전체 길이가 약 10m인 우라시마 8000의 무게는 7t가량이다. 지정된 경로를 따

라 자율항행도 할 수 있다. 음파로 해저 지형과 지층을 조사하고 한 번 잠항으로 최대 100km에 달하는 해역을 탐사한다. 연합뉴스